



즉시 배포용: 2022년 3월 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미드 허드슨 브리지에 현금 없는 톨게이트 설치 발표

*모든 뉴욕주 운영 톨게이트에 현금 없이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여 더욱 안전하고
중단 없는 이동 가능*

뉴욕주 교량청 및 스루웨이 관리청 도로에서 이지패스 또는 우편 지불로 톨 요금 납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하이랜드와 포킵시를 연결하는 미드 허드슨 브리지(Mid-Hudson Bridge)에서 3월 1일 화요일부터 현금 없는 톨게이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주 교량청(New York State Bridge Authority, NYSBA)이 운영하는 다섯 곳의 브리지를 비롯해 뉴욕주 운영 유료 도로에서 현금 없는 톨게이트 시스템을 완비하게 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30년 미드 허드슨 브리지가 개통했을 때, 당시 주지사인 Franklin Roosevelt는 허드슨 밸리 및 뉴욕의 기타 지역에 브리지를 비롯한 기타 시설이 가져올 경제 사회적 효과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FDR의 시대가 그러했듯이, 뉴욕은 또 한번 인프라 시스템을 21세기 수요에 맞게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발전에는 현금 없는 톨게이트 설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뉴욕의 교통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또한 무현금 기술로 운영되는 모든 도로에서 뉴욕 주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브리지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이제 멈추지 않고 갠트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최신 센서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이-지패스 태그를 읽고 번호판 이미지를 인식합니다. 이-지패스 태그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자동으로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이-지패스 태그가 없는 차량은 번호판 사진이 찍히고 차량을 소유한 등록자에게 통행료 청구서가 우편 발송될 것입니다.

현금 없는 톨게이트 장비가 설치된 오버헤드 갠트리가 브리지 서쪽에 위치하며, 이곳은 교량청 본부의 서쪽에 해당합니다. 모든 허드슨 리버(Hudson River) 브리지에서 톨 요금은 동쪽 이동자에게만 징수됩니다.

현재 톨 부스는 즉시 철거될 예정입니다. 모든 톨 부스를 철거함으로써 도로 이동의 장애물이 사라지며,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톨 부스 철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운전자들은 현재 톨 플라자 지역을 통해 이동하며, 해당 지역을 지날 때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더욱 원활하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해지는 것과 더불어, 현금 없는 톨게이트는 또한 불필요 엔진 가동 및 연료 절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인한 오염을 줄인다는 환경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뉴욕주 교량청은 베어 산, 뉴버그-비컨, 미드 허드슨, 킹스턴-라인클리프, 립 밴 원클 브리지 등 다섯 곳에 현금 없는 톨게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버그 비컨 브리지(Newburgh-Beacon Bridge)는 2021년 7월 7일부터 최초로 현금 없는 톨게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다른 네 곳의 브리지에서 점차적으로 운영을 확대하였고 미드 허드슨 브리지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교량청의 현금 없는 톨게이트 전환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역의 교량과 도로에서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가장 최근의 성과입니다. 최근 몇년간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교량 및 터널(MTA Bridges & Tunnels)과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은 현금 없는 톨게이트를 설치해 왔으며, 교량청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전 전환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2021년, [스루웨이 관리청](#)은 총 570 마일 규모의 스루웨이 시스템을 전면 현금 없는 톨게이트를 전화하는 첫 번째 단계 사업인 현금 없는 톨게이트 설계-건축 프로젝트(Cashless Tolling Design-Build Project)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로서 230개의 톨 부스를 철거하는 한편, 스루웨이 티켓 시스템을 관장했던 시설인 톨 플라자 52곳을 재개발합니다.

뉴욕주 교량청 사무총장인 Minosca Alcantara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30년 개통한 미드 허드슨 브리지는 얼스터와 더치스 카운티를 연결하는 주요한 통로이자, 뉴욕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브리지 중 하나입니다. 약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이상징적인 시설과 교량청, 그리고 주 전체에 있어 새로운 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톨게이트는 허드슨 밸리를 연결하고 모두를 위해 이동을 개선합니다."

Joan McDonald 뉴욕주 교량청 커미셔너 위원회(New York State Bridge Authority Board of Commissioner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교량청 커미셔너 위원회는 교량청과 뉴욕주 교통 시스템이 거둔 성과를 환영합니다. 현금 없는 톨게이트는 원활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는 기타 교통 기관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교통 개선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위원회는 지난 해 새로운 시스템 설치를 위해 수고해주신 NYSBA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onathan Jacobs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랜드와 포킵시 시를 모두 대표하는 하원의원으로서 저는 미드 허드슨 브리지의 현금 없는 톨게이트 설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 수고해주신 뉴욕주 교량청의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미드 허드슨 브리지에 기타 허드슨 밸리 브리지와 마찬가지로 현금 없는 톨게이트 시스템이 설치되었으며, 저는 우리 지역에서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며 안전한 이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력 계획

실제 부스에 요금을 징수하는 직원이 더 이상 상주하지 않으므로, 일부 교량청 소속 요금 징수 및 교량 운영 직원을 새롭게 안전 기술직으로 배치하여 무현금 시스템 설치 전 근무했던 것과 동일한 시간동안 브리지에서 근무하도록 합니다. 안전 기술 직원은 비상 대응 지원과 현장 안전 모니터링 등 과거 요금 징수 직원이 담당하던 운영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뉴욕주 교량청이 운영하는 모든 구간은 24시간 교량청 통제 센터(Command Center)의 관리를 받습니다.

지불 방법

이지패스(E-ZPass) 태그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운전자는 요금 절약 및 편의를 위해 태그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그는 www.e-zpassny.com에서 주문하거나 주 전역의 [매장](#)에서 픽업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 이지패스 사용자는 교량청 시설 및 기타 이지패스 네트워크 구간에서 톨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패스 사용 고객인 아닌 경우, 우편, 전화, 온라인, 톨스엔와이 앱을 통해 다양한 결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826에 전화를 걸면 톨스 바이 메일 웹사이트(www.tollsbymailny.com)에 연결할 수 있는 링크와 통행료 지불 방법에 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우편 요금 지불 고객은 톨 요금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교량청은 모든 운전자에게 [톨스 뉴욕\(Tolls NY\) 모바일 앱](#) 다운로드를 적극 권장합니다. 앱에서 이지패스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우편 요금 지불 청구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교량청 소개

뉴욕주 교량청은 베어 산, 뉴버그-비컨, 미드 허드슨, 킹스턴-라인클리프, 립 밴 원클 브리지를 관리합니다. 또한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Walkway Over The Hudson) 보행자 교량의 구조물을 소유 및 유지, 관리합니다. 교량청은 대교 유지 보수와 운영에 주로 대교 요금소의 수입으로 자금을 확보하며 주 혹은 연방 세금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nysba.ny.go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교량청(Bridge Authority)에 대한 소식은 www.facebook.com/NYSBridge 및 www.twitter.com/NYSBridg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